

① 개요

원천강본은 역적으로 몰려 몸을 숨긴 남편을 붙잡하게 한 탓에 남의 사주를 보면서 살게 된 원천강의 내력을 전하는 신화이다.

원천강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들키자 몸을 숨긴 남편을 실수로 붙잡하게 하였는데, 이를 원망한 남편이 원천강으로 하여금 평생 남의 사주나 보면서 살라고 하였다.

② 내용

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하자 나라에서 잡으려고 하였다. 원천강 남편은 항아리에 숨어 이를 피하였다. 나라에서는 한 부인에게 아기를 업고 가서 찾게 하였다. 여인은 원천강에게 남편을 내놓으라면서 아기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나무랐다. 이에 화가 난 원천강이 항아리를 열어 젖히자 나라에서 남편을 붙잡아갔다. 남편은 사흘만 버티면 하늘로 가서 왕이 될 터인데 일을 망쳤다며 부인에게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라고 하였다.

③ 특징

조술생이 구연한 자료로 특수본풀이에 해당한다. 원천강(袁天綱)은 당나라의 이름난 점쟁이인데 본풀이에서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는 하찮은 여인으로 등장한다. 원천강이나 보라고 하는 것은 점이나 보라는 뜻이겠다. 단 사흘 앞도 내다보지 못하였으니 평생 남의 앞일을 헤아리는 일을 맡으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.

④ 핵심어

특수본풀이, 항아리, 아기 업은 여인, 원천강

⑤ 원전 서지사항

원천강본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⑥ 관련 자료

원천강본풀리(아카바 · 아카마스, 《조선무속의 연구 上》, 대판옥호서점, 1938)